PA, 독과점 생산체제 형성…

동양제철화학, 315억원 투입 고합 울산2공장 인수 본계약

동양제철화학(대표 이복영)이 워크아웃 상태인 고합의 가소제 사업부문인 울산2공장을 315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12월23일 채권단과 체결했다.

동양제철화학은 고합 울산공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11월24일 선정된 바 있다.

고합 울산2공장은 가소제 원료인 PA(Phthalic Anhydride) 및 DOP(Dioctyl Phthalate)) 생산능력이 각각 7만 5000톤, 5만톤이다.

동양제철화학은 P-X(Para-Xylene) 및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생산기업인 KP케미칼 인수에도 나서 인디아 Reliance Industries, 영안모자, 일본 Mitsubishi 등과 함께 경쟁하고 있다.

화학업계에서는 동양제철화학이 석유화학기업 인수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사업 모색 차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959년 설립 이후 1968년부터 소다회 등 무기화학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온 동양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중국산 소다회 반덤핑 부과기간이 2002년 12월말로 끝나 향후 국내 소다회 시장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비책으로 풀이된다.

소다회는 1970-80년대 동양제철화학의 효자상품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값싼 중국산 소다회가 국내에 대량 반입되고 설비 노후화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장이 위치한 인천 송도지역 주민들이 폐석회 피해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기에 직면한 상태이다.

동양제철화학은 1998년 농약사업부를 다국적기업인 Novartis에 매각했지만 계열사 경인방송이 2001년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사정이 어려워지자 주력사업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고합은 필름사업부를 코오롱에 매각한데 이어 가소제부문의 매각도 성사돼 화섬 원사 사업부인 의왕공장만 매각 대상으로 남게 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26>